



1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 주변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이날 오전 8시11분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가 10분만에 자체 진화됐다. /뉴스시스

## 화재 여파 조선대병원 수술실 이틀째 섰다... 재정비 총력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조선대학교병원이 수술실 화재 여파로 수술 전면 중단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불이 난 곳을 뺀 나머지 14개 수술실은 이번주 안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신관 3층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난 전날 오전부터 수술실 15곳 전체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전날 수술 예정 환자 27명에 이어 이틀째인 이날도 환자 20여 명의 수술 일정이 연기됐다.

현재 병원은 의료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 누전에 따른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각 수술실 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불이 난 7번 수술실과 인접한 다른 수술실 내 각종 의료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는 분해 청소 뒤 재조립, 작동 점검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실 재가동에 앞서 병동 안팎 공기

이번주 중 불 난 7번실 뺀 14개 수술실은 정상화 가능 전망  
이틀 연속 수술예정 환자 20여명 연기... 1명은 타 병원 전원  
"16일 일부 정상화 목표... 전기시설·의료기기·공기질 점검중"

질 상태도 살펴보고 있다. 화재 감식과 현장수습 탓에 7번 수술실은 당분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측은 시설·설비·환경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나머지 수술실 14곳은 운영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16일 수술실 일부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점검·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수술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수술 일정이 곧바로 다시 잡히지는 않는다.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 일정부터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수술 난이도나 수술 참여 의료진 수 등에 따라 환자마다 실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화재로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조선대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는 1명이다. 응급 수술이 필

요한 환자는 아니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원 절차를 마쳤다.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맡는 조선대병원의 수술실 섰다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과부하는 우려했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자체 수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수술실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술 일정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10분께 조선대병원 신관 3층 7번 수술실에 불이 나 10분만에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다.

이 불로 환자·의료진 35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40명이 대피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일부 연기흡입 환자는 병원 내 응급실로 곧바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전광훈 기자

지면 안내	
▶ <b>李大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b>	3면
▶ <b>약취 무릅쓰고 빗물받이 준설 구슬땀... "시민 의식 절실"</b>	9면

### '돈 먹는 하마' 오명 벗나

광주 대중교통혁신위,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예고  
시·의회·노조·사업주 전문가 참여... 21일 첫 논의

광주시가 시내버스 장기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가칭 '대중교통 혁신 협회'가 공식 출범해 준공영제를 비롯해 버스요금·노선개편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버스노조·운송조합(사업주)·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혁신회의' 첫 논의를 오는 21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상건례와 함께 노사상생·노선혁신 등 분과위원 선정, 과제 수립, 추후 일정 등을 조율한다.

또 대중교통혁신회의는 버스요금, 종사자 임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오는 2026년 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방향도 수립한다.

혁신회의 최고 쟁점은 광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이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는 총 10개사이며 1000여대 버스를 2400여명의 운전기사가 운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회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준공영제 시행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올해 14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버스회사에 투입하고도 연료비와 정비비·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적자 누적, 서비스 하락, 승객 감소,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운전원 임금문제 등은 매년 반복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또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전기사 등은 민간회사에 소속돼 있어 노사협상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도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5일과 9일~20일 총 13일동안 임금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으로 인한 광주지역 버스운행 중단은 지난 201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광주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임시버스를 투입했다.

운송조합(사측)과 노조는 임금 3% 인상, 정년 1년 연장(62세),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안한 '대중교통합의체' 구성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노조의 총과업의 근본적 원인이 준공영제에 대한 사측과 노조의 불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혁신회의를 통해 준공영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뒤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 광주경찰, 제헌절 폭주·난폭운전 이륜차 특별단속

광주경찰청·광주지방경찰위원회는 제헌절을 앞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새벽까지 광주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외근·교통순찰대·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관 156명과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48대를 동원, 순찰·단속 활동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교차로와 폭주·난폭 이륜차 예상 집결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이밖에 이륜차 소음,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난폭·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시민의 도로 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확보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i-ONE Bank 하나  
기업 하나

QR코드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